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25.06)



CONTENTS

• 안다아시아벤처스 현황 보고

1. 콜로세움코퍼레이션 투자금 납입 완료
2. 포트폴리오 주요 소식: 라이트브릿지
3. 6월 멘토링협의체

1. 콜로세움코퍼레이션 투자금 납입 완료



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5년 6월 12일부로 AI 기반 풀필먼트(주문 접수부터 보관,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하는 물류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에 20억원(투자재원: 스마트안다-오택캐리어그린뉴딜펀드, 스타트업코리아센틱스안다전북혁신펀드)을 투자했습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주문 이력, 제품 정보, 물류 센터 위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이행경로를 제시하는 AI 풀필먼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형화, 다 품종, 빠른 배송 요구 등 급변하는 이커머스 환경 속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물류 인프라를 제공하며, 기술 기반으로 B2B 풀필먼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풀필먼트 시장은 2022년 2조원에서 2026년 3조원까지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물류 자동화, AI 수요 증대, 온라인 유통 확산 등에 따라 동사의 핵심 역량은 시장 확대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사는 지난 6년간 46개 물류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커머스 풀필먼트 뿐만 아니라 크로스보더, 제조·유통사, 식자재 공급 및 화물운송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2,500억원이 예상되며, 이 중 1,500억원은 수주가 이미 확정된 상태로 1분기 실적 기준 24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진출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2027년 매출액 3,063억원, 당기순이익 261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8년 상반기 IPO를 통한 회수 시 IRR 57%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25.06)

2. 포트폴리오 소식



라이트브릿지, 총 4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공

안다아시아벤처스의 포트폴리오 기업인 라이트브릿지(스마트안다-오택캐리어그린뉴딜펀드, 안다하림전북강원전주지역혁신펀드)가 총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수소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본 라운드는 당사를 포함해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3개 벤처캐피탈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라이트브릿지는 자체 개발한 모듈형 수전해 스택 기술을 기반으로 AEL(알칼라인), PEM(고분자전해질막), AEM(음이온교환막) 기반 고효율 수전해 모듈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중소형 수요처를 겨냥한 'H-Bridge'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수소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동사의 모듈형 수전해 스택의 고도화, 글로벌 인증 대응(UL/CE), 북미·유럽 중심 현지 실증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1.35MW급 수전해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유럽 내 10여 개 상용화 고객사와 추가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출처: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55>

3. 6월 멘토링협의체

2025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안다아시아벤처스에서 6월 멘토링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유망 벤처기업 IR 세션에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기업 '에스유엠'과 열화상 AI 센서 솔루션 기업 '캔랩'이 참여했습니다. 에스유엠은 자율주행 풀스택 자율주행 기술과 주요 기업과의 실증 및 협업 사례를 소개했으며, 본격적인 사업화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캔랩은 열화상 기반 AI 카메라 모듈과 국방·완성차 산업에서의 수요처 확장을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 및 양산 체계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사 독자 기술 기반의 센서 설계 및 IR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이 멘토단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안다아시아벤처스는 앞으로도 우수 기술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협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